

2013 개정 북한 지리교과서에 제시된 독도 관련 내용 분석*

이상균** · 최희*** · 임은진****

The Analysis of the Content Related to Dokdo in New Geography Textbook of North Korea Revised in 2013*

Saangkyun Yi** · Hee Choi*** · Eunjin Lim****

요약 : 현재 일본의 왜곡된 독도 영유권 교육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남북한의 공통된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당국의 공통된 영토관을 확인하고, 독도를 한민족의 중요한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학제개편(2012) 및 교육과정 개정(2013)이 단행되었으며, 교과서가 새롭게 집필되었다. 연구결과, 북한당국은 비록 상대방 체제하에 있는 영토라 할지라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전체를 그들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은 그대로 지리교과서 집필에 반영되었다. 개정 교과서의 학습내용이 계통지리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개정 전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본문에 기술된 독도 내용은 감소한 반면, 지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한 독도영유권 표현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체계화되었다. 반면,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독도에 관한 역사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기술된 측면도 발견되었다. 향후 남북 간의 학술교류를 통해 독도에 관한 우리의 연구성과와 교육자료가 북한의 지리교과서 집필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 독도, 북한 교육과정, 북한 지리교과서, 통일, 영토, 영역

Abstract : In the circumstance of Japan's distorted education for Dokdo ownership claimed by Japan, we need to check the common will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Dokdo ownership to enhance our ownership and to protect strongly against Japan's provocation of Dokdo ownership.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heck the common view of territor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aiming for reunification, and to grasp North Korea's position recognized Dokdo as an important territory of the Korean People. Recently North Korea carried out the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in the year 2012 and the amendment of the course of study in 2013, and the textbook was newly written.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North Korea think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 and realizes that the whole country of Korea as their country although their country is under the setup of another party. When comparing the textbook with the state of before it was amended and the information of the study of the amended textbook was consisted of the systematic geography(centered in the subject) and the written information of the Dokdo in the body of the book reduced a lot, and although the expression of Dokdo which used the map and visual material is more wide and systematic. However, the new textbook of North Korea seems to have lacks of historical explanation related to Dokdo and some contents were written differently than the facts. Hopefully we look forward to being able to use our research result of Dokdo to the writing of North Korea's geography textbook through academic interchang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the future.

Key Words : Dokdo, The course of study in North Korea, Geography textbook of North Korea, Reunification, Territory, Domain

*이 논문은 2017년 한국지리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kyigeo@gmail.com)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전공 박사수료(Ph.D. Candidate, Social Studies Education, Inha University, eksms06@naver.com)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jlim21@kongju.ac.kr)

I. 서론

현재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 방향이 도를 넘는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다. 특히 2017년 3월 수업 방식과 교과서 검정 기준이 되는 학습 지도요령을 10년 만에 개정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적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에 맞게 해설서까지 수정함으로써,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2020년부터 모든 초·중학교 교과서에 들어가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사용되는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80% 정도가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사회와 지리 교과서 등에서 독도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있다.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 정치체제가 다르고 분단되어 있지만, 남한과 북한 모두 국토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한반도 전체를 한 국가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는 상대방의 체제하에 있는 영토라 하더라도 통일이 실현되면 결국 한 나라의 영토가 된다는 가정하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영유권은 한·일 양자간의 영유권 다툼의 구도에서 벗어나 독도에 대한 남북한 전체의 입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에 대한 학습 내용과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지리교육 및 지리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대다수의 연구가 전체 지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대한 체제 분석이나,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 지리교과 내용 통합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남상준, 1993; 손용택, 1993; 2004; 이진, 2005).

그러나 독도와 같은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북한 지리 교육체제나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남상준(1993)은 북한 지리교육을 '민족과 민족주의', '영토문제', '환경문제', '자원'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영토와 관련된 독도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손용택(1993)은 북한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남한 관련 내용을 분석하면서 독도와 제주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손용택(2004)은 김정일의 훈시와 관련된 학년별 교과서 내

용을 분석하면서 독도에 관한 기술을 분류한바 있다. 그러나 대체로 북한의 지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거시적인 분석 접근 중 부분적으로 독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최근 이상균·유수진(2014)은 남북한의 지리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남북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독도의 의미와 상징성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상균·최희(2015)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남북한의 연대와 공동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영토교육과 독도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분석하였다.¹⁾ 2013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임선린(2017)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나, 새로 개편된 북한 지리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독도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²⁾

북한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학제개편, 교육과정 개정 등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단행되었다.³⁾ 북한은 2012년 9월 소학교 4년제에서 5년제로의 1년 연장하고, 중등학교를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 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는 전격적인 학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바로 다음해인 2014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자). 즉 북한 기본 학제는 유·초·중·고의 연한을 2-5-3-3제로 하고 있으며, 유치원 1년(높은 반)을 포함하여 초중등 교육 전체 12년을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리 교과와 관련해서는 초급 중학교에서는 '조선 지리', 고급 중학교에서는 '지리'라는 과목으로 매년 주당 각 1시간씩 배정되었다. 새로 개발된 북한의 교과서는 최근 일본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었다.⁴⁾

북한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지리교과서가 새로 개발된 상황에서 영토와 독도에 관한 북한 지리교육의 내용 변화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그 의미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2013년에 개정된 북한의 지리교과서를 대상으로 영토와 영역에 대한 북한의 인식, 독도 관련 내용기술, 그리고 독도 관련 학습자료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연구내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역과 영토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기초를 먼저 검토하고, 최근에 입수한 5권⁵⁾의 북한 지리교과서 본문에 텍스트 형식으로 기술된 독도 내용, 그리고 독도 관련 학습 자료의 유형 및 특징을 2005 교육과정 지리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였다.

II. 영역과 영토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기초

북한의 지리교과서에서는 남한 소속의 독도가 그들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에 근거하는 것인가? 상대방의 영역까지 자신들의 영토로 포함시키는 것은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교과서 속의 독도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남북한 헌법의 관련 조항을 통해 당국의 기초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헌법을 보더라도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크게 서문,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그리고 국장, 국기, 국가, 수도 등의 항목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문과 정치 부분에 언급된 통일 관련 내용은 표 1과 같다.⁶⁾

북한의 헌법에 조국의 통일과 관련된 언급은 총 8회에 통일에 대한 의지는 확고부동한 것을 알 수 있다(표 1). 다만, 제1장 정치 항목의 제16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영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정도로 진술되어 있을 뿐 북한

표 1. 북한 헌법의 통일관련 내용

항목	관련 내용
서문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고로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 놓으시였다.
정치	-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헌법에서 영토나 영역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⁷⁾

남북한의 헌법 조항을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남과 북이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영토나 영역에 대한 근거는 헌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교과서(중학교 사회, 통합 사회), 지리 교과서(한국 지리, 세계 지리), 사회과부도 또는 지리부도 등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을 보면 헌법에 명시된 영토에 대한 표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음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편찬 상 유의점 중 영토와 관련된 부분이다.

- 우리나라 지도를 제시할 때는 울릉도 및 독도가 포함되고 ‘동해’, ‘황해’ 용어가 바르게 표기된 지도를 사용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바르게 그려진 태극기의 그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할 때는 ‘독도 교육내용 체계안’과 ‘독도 통합홍보 표준지침’을 준수한다.
- 북한 지역에 관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지리적 정보의 변화 상황은 가능한 한 현재의 북한실정에 맞도록 수록하며, 북한 지역에 관한 일반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내용을 적용한다. 단,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행정 구역도는 ‘북한에서 쓰고 있는 도시군 구역’이란 제목 하에서 도계, 시 군계까지 표시하여 별도로 수록한다. 이는 주제도로 간주되며, 지명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의거한다. 그 예로 ‘량강도’는 ‘양강도’로 표기한다. 또 이상화, 혁명화 된 지명은 바뀌기 전 지명을 괄호 안에 삽입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영토나 영역에 관한 지침은 남북한의 헌법과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등에 명시됨에 따라 교과서 집필진들은 이 지침을 근거로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그림 1의 남북한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영역도를 보면 경위도 상의 숫자만 약간 다를 뿐 4국의 위치는 같다.⁸⁾ 특히 북한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영역도에서도 남한에 소속된 독도가 최동단의 영역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 교과서의 지도에서 붉은 색으로 쓰시마섬 옆에는 ‘(일)’이라고 표시하고,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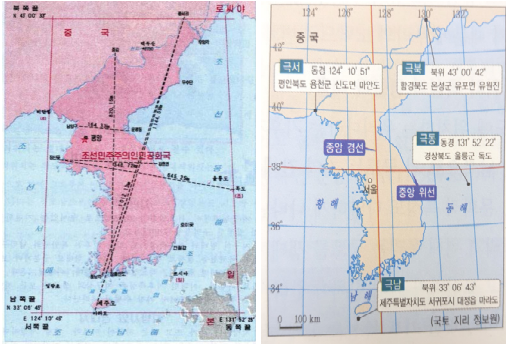


그림 1. 남북한 지리교과서 속의 영역도(좌: 북한, 우: 남한)
출처 : 송금철 등, 2015:6(좌); 박희두 등, 2013:23(우).

는 ‘(조)’라고 표시함으로써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우리나라 영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도상으로는 동경 124° 10′ 45″(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서쪽끝)로부터 동경 131° 52′ 28″(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쪽끝)사이, 위도상으로는 북위 33° 06′ 45″(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끝)로부터 북위 43° 00′ 33″(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쪽끝)사이에 놓여있다. (송금철 등, 2015:4)

정리하면, 헌법 등 상위법과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따라 남북한이 비록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개별 체제로 분단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기술된 영토와 영역은 남북한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 속한 독도와 독도영유권에 대해 북한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우리의 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개정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내용 분석

개정된 북한의 지리 교과과는 초급중학교에서는 ‘조선 지리’라는 과목명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그림 2), 고급중학교에서는 ‘지리’라는 과목명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용 교과서가 학년별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그림 3).

표지에 제시된 교과서의 발행 연도를 보면 주체 102

(2013)부터 주체 104(2015)까지 학교 급을 구분하여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교과서가 개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영토를 나타낸 표지에 독도를 표시해 놓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학습내용은 계통 지리의 형식으로 구성되어면서 스케일은 향토 지리에서 시작하여 세계 지리로 확대되는 동심원적 확대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답사나 지리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 구성에 있어 텍스트의 양은 크게 줄었고 사진, 삽화, 지도 등 시각 자료가 천연색으로 바뀌었으며, 지도의 크기는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울 정도로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 교과서의 학습 자료가 지도 위주로 제시되었다면, 새로운 교과서에는 학습 자료의 종류와 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 단위구성 형태는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탐구하고 지식을 발견하는 교수, 자립적인 학습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교수형태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교과서 집필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조정아 등, 2015). 그 밖에도 최신의 지리학적 연구성과, GIS 등 응용 지리적 요소, 여행지리 등 대중 지리적 요소가 새롭게 도입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2. 초급중학교 ‘조선지리’ 각 학년 교과서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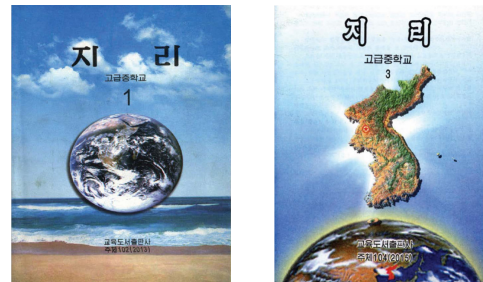


그림 3. 고급중학교 ‘지리’ 각 학년 교과서 표지(2학년 교과서는 누락되었음)

표 2. 2013 개정 북한 지리교과서의 학년별 학습내용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조선지리 1	조선지리 2	조선지리 3	지리 1	지리 2	지리 3
1. 나의 고향 1-1. 고향에 대한 이야기 1-2. 고향에 대한 관찰, 견학 1-3. 고향의 략도 1-4. 고향주변의 군들 2. 내가 만든 <지구> 2-1. 내가 만든 <지구> 2-2. 잃어버린 하루 2-3. 땅이 넓니, 바다가 넓니? 3...으로 가보고 싶다. 3-1. 삼천리 3-2. 다 가보고 싶어 3-3. 나도 올랐네 3-4. 지도우에서의 려행 3-5. 나의 계획	1. 봄부터 겨울까지 1-1. 어느 계절이 좋은가 1-2. 사계절이 왜 생길까 1-3. 서로 다른 기후 2. 자연은 길들이는 것만큼 2-1. 자연재해 2-2. 자연의 보호 및 개조 3. 우리나라의 특산, 우리지방의 특산 3-1. 우리나라의 명산물, 특산물 3-2. 명산물, 특산물 찾기 3-3. 우리지방의 명산물, 특산물 4. 우리나라 바다와 주변 나라들 4-1. 우리나라 바다 4-2. 우리나라 주변나라들	1. 나도 할 수 있다. 1-1. 1mm는 10t 1-2. <좋은비>와 <나쁜비> 1-3. 직접 재여보자 1-4. 우리지방 사람들 2. 우리지방을 한눈에 보자면 2-1. 정확한 지도를 만들자면 2-2. 보다 생동하게 2-3. 완성된 지도 3. 지도와 위성사진조사 3-1. 자연지도와 위성사진조사 3-2. 행정구역도 조사 3-3. 교통운수망도 조사 3-4. 우리나라 주변지역 동남아시아	제1장 우리지방의 암석과 지형변화 제1절 암석과 지형조사 제2절 지구겉면의 변화 제2장 우리지방의 날씨와 물자원 제1절 날씨 제2절 우리지방의 물자원 제3장 우리지방의 환경보호 제1절 환경문제와 환경보호 제2절 환경보호활동설계와 실천 제4장 지구와 달 제1절 지구의 형성 제2절 지질시대 제3절 달의 운동 제4절 미세기	교과서 누락	제1장 우리나라의 자연 제1절 지리적 위치와 국토의 크기 제2절 지형 제3절 기후와 생물 제4절 강과 호수, 지하수 제5절 바다 제6절 자원 제2장 우리나라 경제 제1절 공업 제2절 농업 제3절 운수 제4절 지리정보기술과 지식산업 제3장 우리지방의 미래 제1절 우리지방의 경제발전전망 제2절 우리지방의 국토관리사업의 전망

2005 교육과정과 2013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본문의 텍스트와 텍스트 이외의 학습 자료를 분리하여 양적의 면과 질적인 면을 모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학습 자료는 본문의 텍스트를 제외한 지도, 사진, 삽화, 그림, 표지 등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텍스트 상의 독도 내용을 검토하고 독도 관련 학습자료는 다음 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005 교육과정 지리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2개 학년 과정에서 총 네 번에 걸쳐 본문 텍스트 형태로 다루어졌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영역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일본의 독도 침탈을 비난하면서 독도가 우리의 신령한 영토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표 3). 2005 교육과정 지리 교과서는 학습내용이 지역 지리의 틀로 구성됨에 따라 국토지리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이 구성된 중학교 2학년에서도 다루어지고, 각 지방에 관한 지역지리로 구성된 중학교 4학년 지리의 동남지방 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단독 소주제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국토의 크기와 위치에 관한 소단원에서 김정일의 교시와 함께 신령한 영토로서의 독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상대적으로 독도 관련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같은 학년 교과서의 제5장은 우리나라의 바다라는 대단원이 있는데, 두 번째 소단원인 조선동해에서 독도가 한 번 더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반면, 2013 개정 교과서에서는 두 번에 걸쳐 본문 텍스트로 다루고 있어 기존 교과서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지리 교과를 계통지리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게 되면서, 기존의 지역지리 내용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국토지리 단원에서도 김정일 등의 교시가 빠짐에 따라 독도와 관련하여 본문에서 텍스트로 다루는 것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2013 개정 지리교과서에서는 2개 학년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 독도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초급중학교 1학년의 세 번째 대단원 ‘...으로 가보고 싶다’의 ‘3-1 삼천리 단원’이다. 교과서에 기술된 이 대단원의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서 지도 윤곽과 제시된 지도 기호에 대한 표상을 갖아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주요 명산과 명승지, 주요철도, 도로, 도시들에 대한 표상을 가져야 한다.

표 3. 2005 교육과정에 따른 북한 지리교과서의 독도 관련 본문 텍스트 자료

학년 (과목명)	쪽수	독도 관련 본문내용
지리 (중 2)	4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독도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령토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섬이며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 하던 우리나라의 신성한 령토이다. 독도와 그 주변 바다에는 물개와 고래, 곱등어가 서식하고 있으며, 다시마, 미역, 성게, 생복 등 해산물이 무진장하게 번식하고 있다.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나라는 조선 이며, 독도영유권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땅인 독도를 <일본령도>라고 파렴치하게 주장하며 독도강탈에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허황한 망상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6쪽	우리나라의 서쪽끝은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동경 124° 10' 47")이며, 동쪽끝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동경 131° 52' 40")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경 124°와 132° 사이에 놓여 있다.
	75-76쪽	독도는 울릉도에서 90km, 룡지에서 220km 정도 떨어진 조선동해의 우리나라 섬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서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두 개 섬과 30여개의 크고작은 바위섬 들로 이루어져 있다. 섬의 총 면적은 0.117km ² 이며 제일 높은 곳은 171m이다. 동도의 꼭대기에는 화산이 분출한 흔적이 남아있다. 섬의 기슭은 높은 벼랑이고 두 세 곳에 크지 않은 자갈밭이 있다. 독도는 기후가 따뜻하고 강수량 도 풍부하다. 섬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고 바닷바람이 세기 때문에 나무는 자라지 못한다. [...] 독도는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우리나라의 땅이며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령토이다.
지리 (중 3)	69쪽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있는 화산섬으로서 울릉도가 이루어질 때 형성 되었다. 동, 서 두 개의 큰 섬과 주위의 작은 석들, 암초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다. 독도는 그 주변바다에 오징어, 고등어, 공치 등이 많아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이 수산근거지로 리용하여 왔다. 오늘날 이 독도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빼앗아내려고 책동하고 있지만 놈들의 강도적 야망은 실현될 수 없으며 독도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령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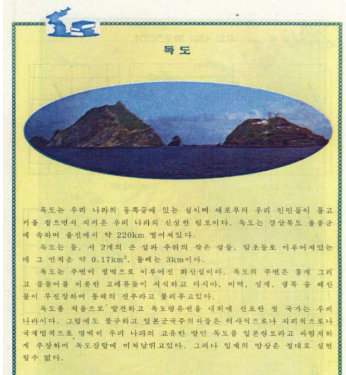
출처 : 김도성 · 차용걸, 2005:69; 박홍준, 2005b:76.

3. 자체로 자기 지방에 대한 참관 계획을 세우고 실천 하여야 한다.

이 단원의 첫 번째 3-1 삼천리 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행정구역에 대한 학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반도와 섬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지도그리기, 동쪽 끝에 위치한 중요한 섬으로서 독도를 소개하고 있다. 한 페이지 전체에 독도 사진과 그 내용을 별도의 네모 틀 안에 넣어 구성하였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감정적인 어조로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4).

두 번째로 고급중학교 3학년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독도내용은 첫 번째 대단원인 '우리나라의 자연', 제1절 '지리적 위치와 국토의 크기' 단원에서 다뤄진다. 우리나라 영역의 한계를 지도와 함께 설명하고 있으며, 비교적 객관적인 어조로 기술하고 있다(그림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지리교과서는 계통 지리 방식으로 학습내용이 구성됨에 따라 지역지리 형태로 구성되었던 기존 교과서에 비해 독도 관련 본문 내용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독도 관련 본문 내용을 박스의 형태로 독도 사진과 함께 구성함으로써 독도



독도는 우리 나라의 동쪽끝에 있는 섬이며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지켜온 우리나라의 신성한 령토이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며 울진에서 약 220km 떨어져 있다. 독도는 동, 서 2개의 큰 섬과 주위의 작은 섬들,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면적은 약 0.17km², 둘레는 3km이다. 독도는 주변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독도의 주변은 물개 그리고 곱등어를 비롯한 고래류들이 서식하고 다시마, 미역, 성게, 생복 등 해산물이 무진장하여 동해의 진주라고 불리우고 있다.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독도영유권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는 우리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땅인 독도를 일본령도라고 파렴치하게 주장하며 독도강탈에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망상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그림 4. 박광일 등(2013:38)에 제시된 독도 관련 내용

지리적위치치는 절대적위치와 상대적위치로 볼수 있다. 절대적위치치는 위도와 경도로 본 위치이며 상대적위치치는 이미 알려진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어느쪽에 놓여있는가를 나타낸것이다. 우리 나라는 경도상으로는 동경 124°10'45"(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서쪽끝)로부터 동경 131°52'28"(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쪽끝)사이, 위도상으로는 북위 33°06'45"(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끝)로부터 북위 43°00'33"(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쪽끝)사이에 놓여있다. 우리 나라는 유라시아대륙의 동쪽에서 태평양으로 길게 뻗어있는 조선반도에 자리잡고있다. 우리나라는 경도 상으로는 동경 124° 10' 45"(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서쪽끝)로부터 동경 131° 52' 28"(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쪽끝)사이...이하 생략...

그림 5. 명용범(2005:4)의 본문 텍스트 중 독도 관련 내용

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학습의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개정 지리교과서 속의 독도 관련 학습자료 분석

2013 개정에 따른 북한의 새 교과서는 기존의 것과는 질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⁹⁾ 예컨대, 개정 전후 지리교과서의 독도 관련 학습 자료의 유형과 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정 전 교과서에서 독도는 주로 본문의 텍스트와 작고 조잡한 지도에 표현되는 정도였으며, 전체 교과서에서 독도를 다루는 빈도는 총 20회에 지나지 않았다(표 4).

반면, 개정 지리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본문의 텍스트보다는 지도나 삽화와 같은 학습 자료를 통해 훨씬 더 섬세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독도 관련 학습자료는 지도, 삽화 속 지도, 그림, 표, 사진 등 다양하며, 학습 자료의 성격에 맞게 독도의 형상만 표현되기도 하고, 독도의 형상과 독도 명칭 및 소속이 같이 표기되기도 하였다. 개정 교과서의 독도 관련 학습 자료는 본문의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하여 총 50건 이상으로 2005년 교과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5).

북한의 학제개편에 따른 새 교과서 집필지침에 의하면, 학생들이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찰과 조사, 가설설정과 실험적 검증을 통해 탐구정신과 탐구방법, 창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과서의 집필 방향을 제시

표 4. 2005 북한 지리 교과서에 독도가 제시된 자료 유형 및 수

학년	자료 유형	자료 수	계
중2	지도	13	16
	본문 텍스트	3	
중3	지도	1	1
	본문 텍스트	0	
중4	지도	2	3
	본문 텍스트	1	
총 계			20

표 5. 2013 개정 북한 지리교과서에 독도가 제시된 자료 유형 및 수

학교급	학년	자료 유형	자료 수	계
초급 중학교	조선지리 1	지도	9	12
		본문 텍스트	1	
		기타(사진, 삽화, 그림, 표지)	2	
	조선지리 2	지도	7	8
		본문 텍스트	0	
		기타(사진, 삽화, 그림, 표지, 표)	1	
	조선지리 3	지도	9	9
		본문 텍스트	0	
		기타(사진, 삽화, 그림, 표지, 표)	0	
고급 중학교	지리 1	지도	1	2
		본문 텍스트	0	
		기타(사진, 삽화, 그림, 표지, 표)	1	
	지리 2	교과서 누락(분석 불가)		-
	지리 3	지도	18	20
		텍스트	1	
		기타(사진, 삽화, 그림, 표지, 표)	1	
총계				51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개혁에 대한 위로부터의 변화는 곧바로 교과서 집필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조정아 등, 2015).

개정 전후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독도 관련 학습 자료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편찬 지침에 따라 본문의 텍스트 보다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교과서에 담게 되고, 이때 사용된 거의 모든 지도에 독도를 표시해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매우 작은 지도라서 스케일 상 독도가 표시되기 어려운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표시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각종 분포도와 사진 등 다양한 학습 자료에 독도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토로 표현될 수 있게 고려한 조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 식물분포도

3. ...으로 가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나라의 산 좋고 물 맑고 경치가 아름다와 해외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불리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이대까지 산 좋고 물 맑고 자원이 풍부하여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유리할뿐 아니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명승지들이 많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친대한 대지연계구상과 현명한 일로에 의하여 우리의 조국산천은 더욱더 아름답게 변모되어가고있다.

학습목표

1. 우리 나라 지도를 그려서인 지도음과라 제시된 지도모형을 대한 표상을 가져야 한다.
2. 우리 나라의 주요명산과 명승지, 주요혈도, 도포, 도시들에 대한 표상을 가져야 한다.
3. 자력으로 자기 지명에 대한 함정계회를 세우고 정정하여야 한다.

- 120 -

표 6. 초급중학교 2013 개정 조선지리 교과서의 자료 유형 및 독도 표기 방식

학년(과목명)	쪽수	자료 유형	제목(자료 형태)	비고
초급중 1 (조선지리)	14쪽	지도	조선행정구역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크기 지도
	32쪽	삽화 속 지도	조선행정구역도	독도 형상만 표현
	36쪽	그림	근역강산맹호기상도	독도 형상만 표현 전체 페이지크기 지도
	37쪽	지도	우리나라 지도 그리기활동	독도 형상만 표현
	38쪽	사진과 텍스트	전체페이지 활용	독도 사진과 텍스트
	39쪽	지도	우리나라 동서, 남북 길이 지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크기 지도
	44쪽	지도	주요 산(백두산) 위치관련 지도	독도 형상만 표현 약 1/6 페이지 크기 지도
	50쪽	지도	주요 산(금강산) 위치관련 지도	독도 형상만 표현 약 1/6 페이지 크기 지도로
	54쪽	지도	주요 산(묘향산) 위치관련 지도	독도의 형상만 표현
	58쪽	지도	주요 산(구월산) 위치관련 지도	
	62쪽	지도	주요 산(칠보산) 위치관련 지도	
	64쪽	지도	주요 산(지리산) 위치관련 지도	
초급중 2 (조선지리)	표지	지도	-	독도 형상만 표현
	13쪽	지도	평양, 해산 지방의 계절별 길이	독도 형상만 표현 약 1/3페이지 크기 백지도
	56쪽	지도	우리나라의 명산물, 특산물 분포도	“독도” 표기 전체페이지 크기 지도
	57쪽	지도	기후도	“독도(조)” 표기 전체페이지 크기 지도
	68쪽	표	대표적인 섬, 반도, 만, 명승지	독도는 조선동해에 대표적인 섬으로 분류
	69쪽	지도	우리나라의 바다	“독도(조)” 표기 약 1/3페이지 크기 백지도
	70쪽	지도	해류분포도	독도 형상만 표현 약 1/3페이지 크기 지도
	74쪽	지도	동부아시아지도	약 1/6페이지 크기 지도에 독도의 형상만 표현
초급중 3 (조선지리)	11쪽	지도	우리나라 강수량 분포도	“독도(조)” 표기 전체페이지 크기 지도
	51쪽	지도	조선자연지도	“독도(조)” 표기 전체페이지 2배 지도로 남한부분이 한 페이지임
	53쪽	지도	산줄기도	“독도(조)” 표기 전체페이지 크기 지도
	57쪽	지도	고원 분지 지도	“독도(조)” 표기 약 1/2페이지 크기 지도
	60쪽	지도	주요 별(갯벌)	“독도(조)” 표기 전체페이지 크기 지도
	67쪽	지도	주요 반도, 만, 섬	“독도(조)” 표기 전체페이지 크기 지도
	71쪽	지도	행정구역도 조사	“독도(조)” 표기 전체페이지 크기 지도
	76쪽	지도	교통망도	“독도(조)” 표기 전체페이지 크기 지도
	80쪽	지도	곡선계 만들기	“독도(조)” 표기

표 7. 고급중학교 2013 개정 지리 교과서의 자료 유형 및 독도 표기 방식

학년 (과목명)	쪽수	자료 유형	제목(자료 형태)	비고
고급중 1 (지리)	22쪽	사진	화산섬 독도	화산관련 내용 1/4 페이지 분량의 사진
	57쪽	지도	우리나라 강수량 분포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고급중 2 (지리)	교과서 누락(분석 불가)			
고급중 3 (지리)	표지	지도	-	독도 형상만 표현
	4쪽	본문 텍스트	우리나라 영역의 경계설명	독도 위치에 대한 것만 텍스트 중 있음
	6쪽	지도	우리나라의 4극과 해뜨는 시간의 차이에 대한 탐구활동에 제시된 지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11쪽	지도	우리나라 산줄기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12쪽	지도	우리나라 고원, 분지분포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13쪽	지도	우리나라 별, 반도, 만, 섬 분포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18쪽	지도	우리나라 기후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22쪽	지도	우리나라 식물분포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25쪽	지도	우리나라 동물분포도	“독도”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28쪽	지도	우리나라 강, 호수분포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35쪽	지도	우리나라 주요 온천, 약수분포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36쪽	지도	우리나라 바다	“독도”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41쪽	지도	우리나라 금속지하자원 분포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42쪽	지도	우리나라 비금속지하자원 분포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43쪽	지도	우리나라 석탄자원 분포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56쪽	지도	우리나라 주요 발전소 배치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59쪽	지도	우리나라 주요 금속공업 배치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62쪽	지도	우리나라 주요 기계공업 배치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65쪽	지도	우리나라 주요 화학 및 전재공업 배치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74쪽	지도	우리나라 주요 교통망도	“독도(조)” 표기 전체 페이지 크기의 지도

습 자료가 주로 지도 위주였다면, 새로운 교과서에는 학습 자료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수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의 독도도발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교육과정 개편 및 새로운 지리교과서가 발행됨에 따라 영토 및 독도에 관한 북한 지리교육의 내용 변화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그 의미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당국의 공통된 영토관을 확인하고, 독도를 한민족의 중요한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역과 영토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기초를 먼저 검토하였고, 최근에 입수한 5권의 북한 지리교과서의 내용 체계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도출한 후, 지리교과서의 본문 텍스트에 기술된 독도 내용, 그리고 독도 관련 학습 자료의 유형 및 특징을 2005 개정 지리교과서와 비교 분석하였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상위법인 북한 헌법의 관련 조항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그리고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 헌법에서도 현재는 서로 다른 정치 체제하에 있더라도 미래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전체를 한 나라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본 전제하에서 교과용도서 지침서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교과서가 집필된다고 할 수 있다.

2013 개정 북한 지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은 본문상의 텍스트와 학습 자료를 구분하여 2005 개정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였다. 2013 개정 교과서는 계통지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이 구성됨에 따라 개정 전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본문을 통해 다루지는 독도 내용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지도나 사진 등 시각자료의 질이 개선되고 양이 크게 증가된 상황에서 독도의 형상과 명칭, 그리고 소속은 거의 대다수의 지도에 명확하게 표현됨으로써 영유권 수호의 의지는 더욱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모호하게 기술된 측면도 발견되었다. 남한에서는 독도에 관한 학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학교교육에도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 간의 학술교류를 통해

독도에 관한 우리의 연구성과와 교육자료가 북한의 지리교과서 집필에도 활용되기를 바라며, 독도영유권에 관한 남북 간 공통의 관심사가 남북대화 및 통일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독도영유권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일본의 독도도발을 차단하는데 대단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註

- 1) 국내 학계의 독도 관련 연구는 주로 국제법, 역사학, 지리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리교육에서는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대한 분석 비중이 높고, 한국의 지리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독도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이하나 조철기, 2011; 서태열, 2012; 송호열, 2012).
- 2)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초급중 3개년, 고급중 3개년 등 총 6권으로 구성되는데, 임선린(2017)은 자료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인해 초급중 1학년(조선지리)과 고급중 1학년(지리) 교과서에 대한 분석에 그쳤으며, 나머지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시도된바 없다.
- 3)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되는 안이 발표되었다(최명희, 2014). 북한 당국은 2013~2014년도부터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2014~2015년도부터 소학교를 5년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 4) 2013 개정 북한의 교과서는 일본 오사가 소재 Asia Press사에서 수집·배포하여 최근에 국내로 반입되었다.
- 5) 본 연구는 일본 오사가 소재 Asia Press사에서 수집·제작·배포한 지리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중등 6권의 교과서 중 고급중 2학년 지리교과서는 입수 불가인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총 5권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년 4월 13일 개정본).
- 7) 북한 국적법 제2조 1항에는 "공화국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로 명시함으로써 국

적의 기준은 공화국창건 이전, 즉 일제시대와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영토였던 한반도 전역에 거주하였던 자를 조선국민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현 북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근거이다. 요컨대, 오늘날 북한에서 한반도 전체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것은 조선시대 또는 일제 강점기의 판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8) 북한 교과서에 극서로 제시되고 있는 비단섬은 1958년에 신도(薪島)지구 개간사업으로 신도, 마안도, 말도, 장도, 양도와 무명평 일대의 간석지를 연결해서 1개의 섬으로 만들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지명이다. 반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개간 사업 전 압록강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인 마안도를 극서로 보고 있다.
- 9) 북한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움직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도된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김정은의 최초 담화는 2012년 4월 19일자 기사로서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짊어지고 나갈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로 확인되며, 교육개혁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가 담긴 눈에 띄는 담화는 다음과 같은 2014년 9월 6일자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인 교육발전의 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여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위원회, 2013, 「제1차 전반적12년제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 김도성·차용걸, 2005, 「지리4」,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김재완, 2003, “남북한 중등지리 교과서의 비교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2), 153-168.
- 김진숙, 2016, “남북한의 최근 개정 교육과정 총론 비교,” 교육과정연구, 34(2), 47-67.
- 김진숙·박수련·이나연, 2016, “북한의 2013년 개정 교육과정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349-368.
- 남상준, 1993, “북한 지리교육의 정향,” 사회과교육, 26, 150-160.
- 남상준·차조일·장혜정·배영호·김현주, 2013, 「탈북학생 지도용 사회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초등학교」,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제3조, 제4조」(1987년 10월 29일 개정).
- 림일·김성민·박광철·송금철·최현수·지국철, 2014, 「조선지리」(초급중학교 제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명용범, 2005, 「지리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문영빈·배인영, 2005, 「지리5」,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박광철·림일·김정현·한승철·최현수, 2013, 「조선지리」(초급중학교 제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박광철·최현수·지국철·김성민·김정현, 2015, 「조선지리」(초급중학교 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박은아, 2016, “남북한 사회과 교육 통합을 위한 시론-최근의 남북한 사회과 교육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8(2), 1-30.
- 박흥준, 2005a, 「지리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박흥준, 2005b, 「지리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박희두·박철웅·황의호·도정훈·채기병·김재기·조성호·이강준, 2013, 「한국지리」(고등학교), 서울: 미래엔.
- 서태열, 2012,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중등 지리 교과서에서의 독도 및 동해 교육,” 한국지리학회지, 1(1), 1-9.
- 손용택, 1993, “북한의 ‘조선지리’ 교과서 내용분석,” 사회과교육, 26, 168-182.
- 손용택, 2004, “남북한 지리교과서 내용구성의 체계 탐색과 대북미관,” 국토지리학회지, 38(3), 199-214.
- 송호열, 2012,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2), 53-69.
- 송금철·신정심·백현성·림일·박광철, 2015, 「지리」(고급중학교 제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신효숙, 2015, “북한교육의 발전과정과 특징,” 현대사광장, 6, 10-29.
- 윤옥경, 2004, “북한 지역에 대한 초·중등학교 지리 학습자료 개선 방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2), 327-341.
- 이상균·유수진, 2014, “남북한 지리교육의 공유면과 민족적 표상으로서의 독도,” 영토해양연구, 7, 74-97.

이상균·최희, 2015, “북한의 영토교육과 한민족의 독도 영유권,” 영토해양연구, 9, 44-73.

이양우, 1993, “북한의 지리교육: 남북한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사회과교육, 26, 129-149.

이전, 2005,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대한 일고찰: 북한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1990년판과 2000년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607-619.

이하나·조철기, 2011, “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 교육 내용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3), 332-347.

임선린, 2017, “2013 간행 북한 지리 교과서의 분석,”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1999년 2월 26일 개정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년 4월 13일 개정본).

조정아·이교덕·강호제·정채관, 2015,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최명희, 2014, “교우관계를 통한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4), 191-214.

최석진·남상준·류재명·손용택·이동엽, 2000, “북한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 분석 연구,” 사회과교육, 33, 283-308.

최현수·지국철·승금철·박광철·김성민·김도성, 2013, 「지리」(고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한만길·이관형, 2014, “북한의 12년 학제 개편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18(2), 233-254.

한봉희, 1993, “북한의 세계지리 교과서 분석,” 사회과교육, 26, 161-167.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자,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로동신문, 2014년 9월 6일자,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자, “조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교신 : 임은진,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ejlim21@kongju.ac.kr)

Correspondence : Eunjin Lim, 32588,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ejlim21@kongju.ac.kr)

투 고 일: 2017년 7월 20일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10일
투고확정일: 2017년 8월 16일

